

지역 소식통

김제시, 열린행정 구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소통과 대화로 실천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1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김제 발전 역량 결집을 위한 대시민 소통 행정으로 시민 소통 공감의 날과 열린 시장실을 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에도 오는 19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4년의 시정 설계 방향과 주요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성주 김제시장과의 '열린 대화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문화역사전망대 방문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11일 시범 운영을 앞둔 완주 삼례읍 소재 문화역사전망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서남용 의장, 이경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화역사전망대의 시범 운영 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우석대학교 대학본부 23층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의 내외부 공간 및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집행부 및 우석대 관계자들과 공간 활용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 농업기술센터 박급남 소장이 10일부터 농기센터와 직접 관계되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박 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현장 방문에서는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와 주요 사업을 살피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다. 박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해 생생감 넘치는 현장행정을 펼쳐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교육·문화예술 사업 분주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해외역사문화탐방 등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 모두가 누리는 교육·문화·예술 복지 실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올 한 해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모두배움터 조성으로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학교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과 함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김제교육지원청 및 지역학교와 협력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교육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 모두가 누리는 교육·문화·예술 복지 실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공유플랫폼 설치로 학습인프라를 확충하고, 2006년부터 시민의 지식재산소 역할을 해 온 '지평선 아카데미'와 학습자 중심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과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 기획·유치 또한 진행된다. '김제 문화의 날'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흥미로운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김제 최초 '국가 명승지 망해사 지정'에 전력을 쏟는 한편, '배장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으로 문화재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문화제 야행'은 가을밤의 풍류를 선사하는 동시에 시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내용 구성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맘껏 누릴 수 있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예술, 문화재 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김제를 더욱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4년 완주군 신년인사회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유희태 군수, 서남용 군의장과 의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완주 "도약의 한 해 만들 것" ... 신년인사회

완주청년회의소 주관 각계 인사 180여명 참석

2024년 완주군 신년인사회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군의장과 의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렸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사에는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한병규 JTV 전주방송 사장, 윤석일 뉴시스 전북본부장,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김영기 노인회장 등 유관기관장 및 단체인사, 축사, 축하 떡 자르기, 덕담 및 건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석 완주청년회의소 회장은 "완주청년회의소는 창립 이후 52년 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며 "완주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23년은 완주군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한 해였다면, 2024년은 완주군이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미래행복도시를 향해 한창 달려나가는 완주에 많

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의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들 덕분에 완주 수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모든 유관기관·사회단체가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해 완주군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군수는 건배사를 통해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을 이룬다"며 "비행기" 건배사를 의뢰하고, 참석자들은 "날아라"로 화답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는 10일 김제시청 민원종합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제시보건소, '사랑의 헌혈' 진행

공노조 및 기관사회단체장 참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김제시청 민원종합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 캠페인은 급감하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명나눔의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혈액 수급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시 공무원 노조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혈액을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으로, 헌혈에 참여한 경우 헌혈 전 검사(혈액형, 비중, 혈압, 체중, 체온 검사) 및 헌혈 후 기본혈액 검사(B형간염 항원, C형간염 항체, HIV검사, 핵산증폭검사, T세포림프친

화바이러스, 매독항체, 간기능검사, 총단백) 결과를 우편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 11번째 헌혈에 참여한 김산동 주민 이모씨는 "헌혈은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의 실천운동"이라며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가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소망을 드러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헌혈은 우리 가족,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키는 생명나눔의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 나눔 실천 헌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의약품리팀(☎540-4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5% 할인 받으세요"

완주군, 지난해 25% 연납 납부... 카카오페이서도 신청 가능

완주군이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로 납부하면 최대 5%까지 감면된다.

완주군의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3,100여 대로, 지난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실적은 1만6,000여 건에 육박해 전체의 25%에 달한다.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해 납부하면 해마다 자동 갱신되고, 기존 연납차량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0일 기준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페이서도 간편하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 까지이며, 연납을 원하는 완주지역 납세자는 완주군 재정관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카카오페이서 및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Advertisement for child abuse reporting. Title: 착한신고 (Good Report). Subtitle: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You who reports are a hero). Includes a 112 logo and a list of reasons to report: 1. Child protection officers can't identify the child's health or safety. 2. Child abuse information is not being properly reported. 3. Child abuse is occurring or about to occur. 4. Child abuse is being repeated. 5. Child abuse is causing fear or harm. 6. Child abuse is causing damage to property. 7. Child abuse is caus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8. Child abuse is causing damage to the community. 9. Child abuse is causing damage to the country. 10. Child abuse is causing damage to the world. Contact: 112. Location: Local child protection center. Note: Reporting is free and confidential.